

액체 고양이 라니!

- * 글 : 강정연
- * 그림 : 모로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500원
- * 분량 : 78쪽
- * 대상 : 초등 저학년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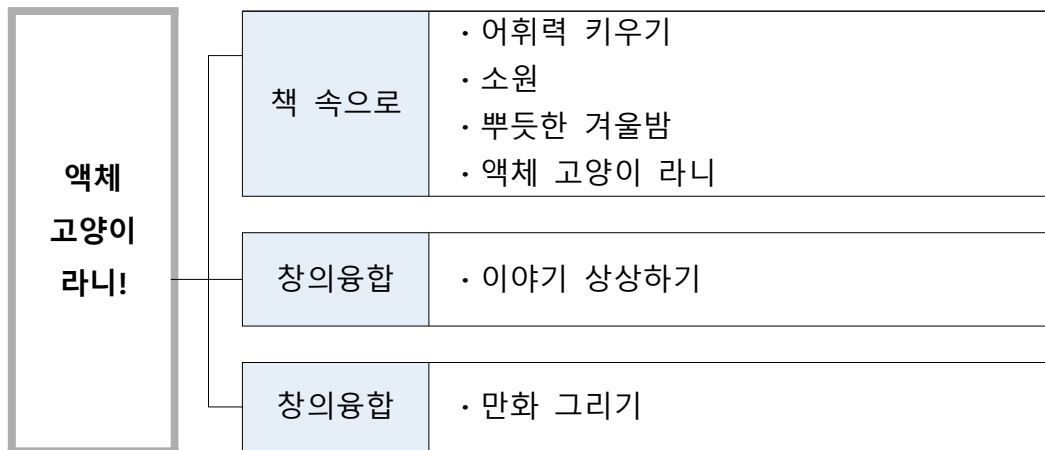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
살아 있는 액체 고양이와의 하루

제이의 크리스마스 소원은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어요. 제이가 소원 쪽지에 썼던 것은 앵무새, 강아지, 나비 등이었는데, 매번 장남감 앵무새, 강아지가 나오는 그림책, 곤충백과를 받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이번 크리스마스엔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제이는 지레 포기하곤 소원 쪽지에 ‘액체 괴물’이라 썼다가, 다시 ‘고양이’로 고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이번엔 들어줄지.

그런데 웬걸, 크리스마스 날 아침 세수를 하던 중 수도꼭지를 비집고 나오는 ‘액체 고양이’를 마주쳤지요. 그냥 살아 있는 고양이도 아니고 액체 고양이라니! 이게 꿈인지 생인지, 제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액괴(액체 괴물)를 소재로 한 《액체 고양이 라니》는 강정연 작가 특유의 유쾌하고 재치 있는 문장으로 ‘동물’ ‘친구’ ‘다정함’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 주요 독후활동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액체 고양이 라니!》의 책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2. 《액체 고양이 라니!》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난 분명 소원 쪽지에 ‘고양이’라고 썼는데…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온 건 푸른 액체, 아니, 젤리, 아니, 덩어리,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 액체 괴물? 맞아요, 액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엄지 척’을 올렸던 푸른 회색 물결무늬 고양이였어요. 털 대신 온몸이 액체괴물로 이루어진 액체 고양이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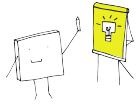
믿을 수 있겠어요?

액체 고양이라니!

1)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온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2) 액괴를 가지고 놀아 본 적 있나요? 액괴를 만질 때 느낌이 어땠나요?

3) 나에게 액체 고양이가 생긴다면 어떨 거 같나요? 함께 무엇을 하고 싶나요?



독서 중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인상 깊은 부분을 찾으며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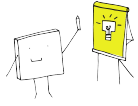
-재미있는 표현이나 기억에 남는 글귀를 생각하며 읽어요.

※ 《액체 고양이 라니!》를 읽으면서 인상 깊은 부분을 적어 봅시다.

읽은 날짜	읽은 쪽	인상 깊은 부분
○월 ○일	11쪽	제이가 액괴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나도 액괴를 좋아해서 공감이 되었다.

2. 책에 나오는 고양이와 사람들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으면 어떨까요? 등장하는 고양이와 사람의 소개 페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제이	→	예) 길고양이에게 밥을 챙겨 줄 만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
라니	→	
엄마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소원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크리스마스 소원 쪽지에 ‘고양이’라고 쓸지 말지 벌써 한 시간째 고민 중이에요. 여섯 살 때는 ‘앵무새’라고 썼는데 장난감 앵무새를 받았고, 일곱 살 때는 ‘강아지’라고 썼는데 강아지가 나오는 그림책을 받았거든요. 여덟 살 땐 ‘나비’라고 썼지만 곤충 백과를 받았어요. 내가 원한 건 살아 있는 앵무새, 살아 있는 강아지, 살아 있는 나비였는데 말이지요. 아무래도 산타 할아버지는 엄마 편인 것 같아요. 엄마는 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걸 무지무지 싫어하거든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건 그냥 핑계일 거예요.

(나) “고양이라고 쓰면 고양이 인형을 주시겠지? 인형은 진짜 시시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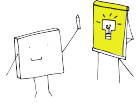
하는 수 없이 소원 쪽지에 다른 소원을 적었어요.

액체 괴물.

액체 괴물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최고로 인기 좋은 장난감이에요. 줄여서 ‘액괴’라고 불러요. ‘슬라임’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슬라임보다는 ‘액괴’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액괴’는 이름이 뭔가 더 흥미진진해 보이잖아요. 액괴는 젤리처럼 말랑하고 크림처럼 부드러워서 만지고 있으면 엄청 기분이 좋아져요.

1. 제이가 가장 갖고 싶었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이고, 쪽지에 쓴 선물은 무엇인가요?
2. 제이가 소원 쪽지에 갖고 싶은 선물을 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나는 크리스마스 소원 쪽지에 뭐라고 적고 싶나요? 소원 쪽지를 채워 보세요.

<소원 쪽지>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뿌듯한 겨울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래도 물은 또 금세 얼 텐데.’

나는 마당에 우뚝 서서 한동안 곰곰 생각했어요. 하얀 눈이 머리와 어깨에 조용조용 쌓이는 것도 모르고요.

“아! 핫팩!”

엄마 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는 핫팩이 벽장 가득 있다는 게 문득 떠올랐어요. 나는 따뜻한 핫팩을 얼른 가지고 나와 물그릇 밑에 깔아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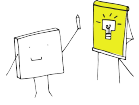
“이렇게 하면 물이 천천히 얼겠지? 혹시 나 천재 아니야? 히히.”

그나저나 갑자기 온몸이 와들와들 추워졌어요. 코도 새빨개지고 손도 발도 푹푹 얼어서 아무 감각이 없을 정도예요. 나는 두 팔로 몸을 감싸고 턱을 딱딱 부딪치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요.

“으……추워…… 그래도 뿌듯한 겨울밤이네.”

(나) 고양이는 상자 속에서 물과 사료를 한참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가 내 쪽으로 돌아보더니 한쪽 앞발을 번쩍 들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의 앞발은 마치 ‘엄지 척’ 모양처럼 보였는데 그 ‘엄지 척’은 라는 뜻 같았어요.

1. 제이가 오늘을 ‘뿌듯한 겨울밤’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나)에서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고양이가 했을 말을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3.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를 도왔던 경험을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액체 고양이 라니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잠시 뒤 액괴 같은 그것은 마치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앞뒤로 쭈욱 늘어났다가 불뚝 솟았다가 다시 뭉개졌다가 했어요. 그러고는 잠시 뒤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래요, 일어섰어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엄지 척’을 올렸던 푸른 회색 물결무늬 고양이였어요. 털 대신 온몸이 액체 괴물로 이루어진 ‘액체 고양이’가 되어 나타난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액체 고양이라니!

(나) “약간의 오해가 있긴 했지만 나는 너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어. 이런 특별한 행운은 아무나 얻는 건 아니야. 적어도 추운 겨울에 길고양이 걱정을 할 만큼은 다정해야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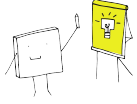
나는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일인가 싶어 가슴이 쿵쾅거리고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1. 액체 고양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 보세요.



2. 내가 그린 액체 고양이의 이름을 붙여 주세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3. 제이가 액체 고양이를 만나는 특별한 행운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액체 고양이 라니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그사이 라니는 푸른 회색 물결무늬 털이 넘실대는 바로 그 고양이로 변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털로 뒤덮인 라니는 액체 고양이일 때보다 훨씬 근사해 보였어요. 엄마의 재채기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우리 엄마가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핑계가 아니었나 봐.”

“그러게. 너희 엄마가 더 힘들어하기 전에 나는 빨리 나가야겠다.”

라니는 창틀로 가볍게 뛰어올랐어요.

“창문 좀 열어 줘.”

나는 라니의 부탁대로 천천히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훅 들어왔어요. 라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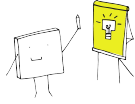
“너랑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낮잠도 자서 너무 좋았어. 고마워.”

“그날 밤 너의 새빨개진 코와 손과 발을 영원히 기억할게. 안녕, 또 만나자.”

라니는 내 손에 얼굴을 비비더니 창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1. 라니와 제이가 만들었던 추억 중에 어떤 게 가장 재미있었을 것 같나요?

2. 종일 제이와 함께한 라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라니가 되어 제이에게 편지를 써 주세요.



독서 후 창의융합_ 이야기 상상하기

※ 제이와 큰 코 할아버지가 만났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상상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적어 보세요.

라니의 집은 예전에 누군가가 나무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 것 같았어요. 지금은 낡고 여기저기 칠이 다 벗겨졌지만 아마도 빨간 지붕이 아주 예뻐할 거예요.

“이 집은 누가 만들어 준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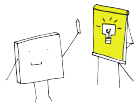
“매일 뒷동산으로 산책 나오시던 큰 코 할아버지. 지금은 만날 수 없어. 갑자기 나타나질 않아.”

“네 집을 보여 줘서 고마워.”

나는 라니를 뒤따라가며 말했어요.

“다정한 어린이와 다정한 큰 코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고 싶었어.”

제이	
큰 코 할아버지	
제이	
큰 코 할아버지	



독서 후 창의융합_ 만화 그리기

※ 액체 고양이 라니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어 보세요.

조금 뒤 발등 위로 간질간질 무언가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 라니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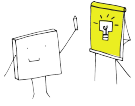
라니는 통에서 스르륵 빠져나와 내 발등을 지나 물처럼 흘러 부엌으로 갔어요.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라니가 뭘 하나 지켜봤어요.

라니는 프라이팬까지 스르륵 올라가더니 몸을 길게 늘려 기지개를 쭉욱 펴면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프라이팬 안을 보며 라니는 콧수염을 파르르 떨더니 입맛을 다셨어요.
프라이팬엔 생선 한 마리가 남아 있었거든요.

라니는 그렇게 아점을 시작했어요.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예시답안) 1. 예) 액체 고양이 라니는 액체 괴물일까, 고양이일까? 예) 고양이 뒤에 놀라고 있는 남자아이는 누구지? 예) 액체 고양이가 있으면 마음대로 몸을 바꿀 수 있겠다! 2. 1) 액체 고양이. 2) 예시 답안) 부드럽고 말랑말랑해서 기분이 좋았다. 3) 예시 답안) 액체 고양이와 함께 유튜브를 찍고 싶다. 금방 인기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p>
3쪽	<p>1. (가이드) 어떤 점에서 인상 깊었는지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2. 예시 답안) 라니: 예시 답안) 제이가 챙겨 주는 고양이, 액체 괴물이 되어 제이 앞에 나타난다. 엄마: 예시 답안) 제이의 엄마. 알레르기가 있어서 동물을 집에서 키우지 못한다. (가이드) 그림과 글로 한 페이지를 만들어 보아도 좋습니다.</p>
4쪽	<p>1. 고양이, 액과 2. 예시 답안) 제이는 살아 있는 고양이를 받고 싶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다른 선물을 줄 것을 알기 때문에. 3. 예시 답안) 포켓몬 스티커를 갖고 싶어요!</p>
5쪽	<p>1. 예시 답안) 길고양이를 위한 따뜻한 물을 준비해 주어서. 2. 예시 답안) 정말 최고야! 3. 예시 답안) 다리를 다친 친구의 가방을 들어 주었다.</p>
6쪽	<p>1. 답안 생략 2. 예시 답안) 말랑이: 액체 고양이는 말랑거릴 거 같아서. 3. 추운 겨울에 길고양이를 위해 음식과 물을 주었기 때문에.</p>
7쪽	<p>1. 예시 답안) 라니가 고양이 바풍이 되어 제이와 함께 하늘을 날았던 게 가장 재밌어 보였다. 2. 예시 답안) 제이에게. 제이야 안녕! 나 라니야. 너와 함께한 시간 정말 즐거웠어. 액과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리고 네가 물도 챙겨 주고, 밥도 챙겨 줘서 정말 고마웠어. 코랑 손이 새빨개질 때까지 나를 위해 애써 줘서 고마워. 네 마음이 느껴져서 물도 밥도 더 맛있었어. 앞으로도 우리 잘 지내자. -라니가.</p>
8쪽	<p>제이: 예시 답안) 할아버지, 왜 갑자기 라니의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큰 코 할아버지: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었어. 병원에 입원했거든. 앞으로 라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제이: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제가 라니가 먹을 물과 음식은 꼭 챙겨 줄게요. 큰 코 할아버지: 그래. 라니에게 제이가 와 주어 정말 다행이야. 병원에서도 계속 라니 걱정을 했거든. 앞으로 우리 라니 잘 부탁하마.</p>
9쪽	(생략)